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노윤구*, 이영숙**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거제대학 간호학과**

Yoon Goo Noh(ygnoh@hanmail.net)*, Young Sook Lee(NU11402@koje.ac.kr)**

요약

이 연구 목적은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3개 간호대학의 212명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는 2015년 12월동안 자가기입식 질문지로 수집되었다.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서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s과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시험불안의 평균은 2.84(±0.53)로 중간 정도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각각 3.50(±0.54)과 3.72(±0.48)로 중간이상이었다. 시험불안은 자기효능감($r=-.32, p<.001$), 사회적지지($r=-.27, p<.001$), 친구지지($r=-.21, p=.002$), 가족지지($r=-.25, p<.001$), 교수지지($r=-.14, p=.038$)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성별은 시험불안을 13%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를 높이는 것은 시험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제시한다.

■ 중심어 : | 시험불안 | 자기효능감 | 사회적지지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A convenience sample of 212 nursing students was obtained from three nursing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uring December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The mean score for test anxiety was located in the middle range, with the score of 2.84±0.53; those for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were located higher in the 1-5 scale, each scoring 3.50±0.54 and 3.72±0.48. Test anxiety correlated negatively with self-efficacy ($r=-.32, p<.001$), social support ($r=-.27, p<.001$), friends support ($r=-.21, p=.002$), family support ($r=-.25, p<.001$) and professor support ($r=-.14, p=.038$).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gender explained 13.0% of participants' test anxiety ($F=11.01, p<.001$).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ing the self-efficacy and family support will be helpful for nursing students to relieve their test anxiety.

■ keyword : | Test Anxiety | Self-Efficacy | Social Support | Nursing Students |

* 2015~2016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8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9월 20일

수정일자 : 2016년 09월 20일

교신저자 : 이영숙, e-mail : NU11402@koje.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된 시험과 대학입시를 위한 많은 시험을 경험하였으며, 대학 입학 후에도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르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직업선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진로결정과 취업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1], 수업과 공부 등의 학업의 결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 및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있다[2][3]. 현대사회는 자유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으며 시험결과는 개인에게 성취감을 주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시험성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험불안은 성과위주의 현실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로, 대학생들의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은 시험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5].

불안의 한 형태인 시험불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반응으로, 적정 수준의 시험불안은 긴장감과 각성을 유지하여 학습과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시험불안은 학습을 저해하거나 과업수행에 역효과를 낸다[6].

최근 간호학과는 2014년 4년제 학과 82.3%와 3년제 학과 86.4%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몇 년 동안 간호학과 신설로 인하여 2013년 14,460명과 2014년 16,72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상황으로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7].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학 교과과정을 수료한 후에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르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비로소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과

졸업반 학생들은 취업준비와 간호사 국가고시를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모의고사를 포함한 많은 횟수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시험불안과 함께 소화불량, 두통, 대인관계 어려움, 우울과 불안 등의 신체,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을 호소하고 있으므로[1][8],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불안의 감소와 관련된 이론 중 하나가 자기효능감 이론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그 사람이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간에 그가 주어진 것을 할 수 있다는 판단과 관련된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나 영역에 대한 자기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9][10].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지속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며, 인간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것을 위해 집중하도록 한다[10]. 또한 자기효능감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11].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과 음의 상관관계이며[12][13],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시험불안이 낮았으므로[14],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시험불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에 대한 지각으로 애정, 관심, 공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바탕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유용한 자원이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지원 속에서 제공되는 물질적 도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함으로써 인간의 발달과 적응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고[16], 아동과 중학생, 여고생의 시험불안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14][17][18]. 또한 사회적 지지와 시험불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시험불

안이 높다[18].

한편 시험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내에서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에 대한 것으로[13][19], 긴 기간 동안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와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며 [1][8], 특히 시험불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외적 환경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간호사 국가고시 관련 시험불안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가점과 학교는 간호사면허와 졸업 후 진로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험 준비를 잘 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여, 사회에서 자격을 갖춘 간호사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고시 준비 기간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연구의 결과를 간호대학생의 국가고시 시험불안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시험불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차이를 규명한다.
- 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

감, 사회적 지지 및 시험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2개 도시의 3개 간호대학의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4 프로그램[2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검정력을 계산한 결과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 효과 크기(ES)= .15로 하였을 때 160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 대상자수 212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22]. 본 연구에서는 Lee, Schwarzer와 Jerusalem[23]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이었고, [2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 이었다.

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만 개인이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회망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한 도움으로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말한다[22]. 본 연구에서는 Han과 Yoo[15]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검사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총 24문항으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수지지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사회적지지 제공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과 Yoo[15]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친구지지 .84, 가족지지 .91, 교사지지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사회적지지 .92, 친구지지 .92, 가족지지 .93, 교수지지 .89 이었다.

3.3 시험불안

시험불안이란 불안의 한 형태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한다[4].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Gonzalez, Taylor, Algaze와 Anton[24]이 개발한 시험불안검사를 Kim[25]이 사용한 도구로 얻은 점수를 말한다. 총 20문항으로 시험불안의 인지적 요인인 걱정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예-시험을 치면서 시험 성적이 걱정되어 문제가 잘 안풀린다. 등), 정서적 요인인 정동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예-시험지를 받아 쥐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확실히 그렇다' 5점 척도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3개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자가 학생들의 강의실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수집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8명을 제외한 212명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회수율은 92.2%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가 학생들의 강의실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결과는 연구목적적으로만 사용하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

우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에 참여하고 언제든지 자의로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 불참과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설문내용은 연구목적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며 작성된 설문내용은 코드화하여 보관하며 연구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으며 위의 내용은 서면설명문으로도 제공하였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본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시험불안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시험불안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3)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시험불안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9명(13.7%), 여자 183명(86.3%)로 대부분 여자였다. 연령은 평균 23.53±2.41세 이었으며, 23~24세가 58.5%로 가장 많았다. 병원취업여부는 취업함 92.5%, 취업미정이 7.5%로 대부분이 병원에 취업하였으며, 학교성적은 중간정도가 60.8%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2)

특성	구분	n	%	M±SD
성별	남	29	13.7	23.53±2.41
	여	183	86.3	
연령	21-22	49	23.1	23.53±2.41
	23-24	124	58.5	
	25이상	39	18.4	
병원취업여부	취업함	196	92.5	23.53±2.41
	취업미정	16	7.5	
학교성적	상위권	42	19.8	23.53±2.41
	중간정도	129	60.8	
	하위권	41	19.3	

표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정도 (n=212)

변수		Min	Max	M±SD
자기효능감		1.90	5.00	3.50±.54
사회적지지	친구지지	2.25	5.00	3.94±.56
	가족지지	2.50	5.00	4.09±.64
	교수지지	1.00	5.00	3.14±.71
	계	2.54	5.00	3.72±.48
시험불안	정서적 요인	1.00	4.56	2.71±.73
	인지적 요인	1.00	4.80	2.95±.70
	계	1.00	4.63	2.84±.69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정도

대상자의 시험불안 평균은 2.84(±0.53)이었다. 자기효능감 평균은 3.50(±0.54)이었다. 사회적지지 평균은 3.72(±0.48)이었으며 하부요인인 가족지지가 4.09(±0.64)으로 가장 높고, 친구지지 3.94(±0.56), 교수지지 3.14(±0.71) 순이었다[표 2].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의 차이

자기효능감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사

회적지지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교성적으로 학교 성적 상위권과 중간정도는 하위권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았다(F=8.28, p<.001). 시험불안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과 학교성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시험불안이 심했으며(t=-2.25, p=.026), 학교성적 하위권이 상위권보다 시험불안이 심했다(F=4.27, p=.015)[표 3].

4.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시험불안 간의 관계

시험불안은 자기효능감(r=-.32, p<.001), 사회적지지(r=-.27,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었다. 시험불안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r=-.21, p=.002),

표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 불안의 차이 (n=212)

특성	구분	n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	
			M±SD	t or F (p) Scheffe Test	M±SD	t or F (p) Scheffe Test	M±SD	t or F (p) Scheffe Test
성별	남	29	3.68±.59	1.83(.068)	3.76±.65	.39(.703)	2.58±.70	-2.25(.026)
	여	183	3.48±.53		3.72±.44		2.88±.68	
연령	21-22	49	3.57±.51	.79(.457)	3.85±.45	2.54(.081)	2.85±.74	.01(.987)
	23-24	124	3.47±.55		3.69±.44		2.83±.66	
	25이상	39	3.55±.57		3.66±.57		2.84±.70	
병원취업여부	취업함	196	3.50±.53	-.54(.592)	3.73±.47	.57(.568)	2.84±.69	-.35(.729)
	취업미정	16	3.58±.71		3.66±.55		2.90±.68	
학교성적	상위권 ^a	42	3.57±.59	2.37(.096)	3.76±.46	8.28(<.001)	2.69±.67	4.27(.015)
	중간정도 ^b	129	3.54±.54		3.79±.47	a,b)c	2.81±.68	c)a
	하위권 ^c	41	3.34±.48		3.46±.44		3.10±.68	

가족지지($r=-.25, p<.001$), 교수지지($r=-.14, p=.038$)와 유의한 부적상관이었으며,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는 유의한 정적상관($r=.47, p<.001$)이었다[표 4].

표 4.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시험불안의 관계 (n=212)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수 지지	계
자기효능감	1				
사회적 지지	친구 지지	.40** ($<.001$)	1		
	가족 지지	.37** ($<.001$)	.44** ($<.001$)	1	
	교사 지지	.29** ($<.001$)	.29** ($<.001$)	.28** ($<.001$)	1
	계	.47** ($<.001$)	.74** ($<.001$)	.76** ($<.001$)	.74** ($<.001$)
시험불안	-.32** ($<.001$)	-.21** (.002)	-.25** ($<.001$)	-.14* (.038)	-.27** ($<.001$)

5.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강한 예측력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보인 성별과 학교성적을 포함하고, 시험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시험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능감($\beta=-.24,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족지지($\beta=-.17, p=.001$), 성별($\beta=.14, p=.039$)이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성별이 여자일수록 시험불안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설명력은 13%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가족지지, 성별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1.01, p<.001$)[표 5]. 분석 전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더빈-왓슨통계량을 구한 결과 2.08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로 가정 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94 ~.97로 .10 이상이었으며, VIF는 1.03~1.19로 1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표 5.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n=212)

	B	SE	β	t	p
(상수)	4.12	.43	-	9.61	$<.001$
자기효능감	-.30	.09	-.24	-3.36	.001
가족지지	-.18	.08	-.17	-2.43	.016
성별(여자)	.27	.13	.14	2.07	.039
Durbin-Watson=2.08, F=11.01, $p<.001, R^2=.14, Adj-R^2=.13$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자들의 시험불안의 평균은 2.84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국가고시에 대한 시험불안에 대한 연구[1][8]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간호학과 1학년생의 시험불안[26]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의에 제한이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은 1학년 보다 국가고시를 앞둔 경우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1년에 1회 시험으로 간호사 면허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간호대학생의 취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시험이다. 국가고시 시험에 대한 합격은 무난한 졸업과 함께 병원 취업을 어느 정도 확실할 수 있지만 국가고시 실패는 간호사로서 취업기회상실로 1년 동안 다시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되므로 국가고시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시험부담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고시가 간호사 면허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임을 인지한 학생들은 국가고시에 대한 시험불안이 더 높아진다고 있는데, 후속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3.50점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자기효능감[27]보다 낮았으며,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28]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학업, 실습, 간호수행능력, 취업을 위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취와 시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과 취업스트레스, 임상실습, 국가고시 시험불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시험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시험불안에 따른 자기효능감 수준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3.72점으로, 친구지지 3.94점, 가족지지 4.09점, 교수지지 3.14점으로 가족지지가 가장 높았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으로서 시험불안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14][16][17][30]. 청소년기를 벗어난 성인기의 대학생은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시기로,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사회적지지의 다른 요인들보다 더 높은 중요한 지지로 확인되었다. 취업과 진로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간호대학생에게 가족지지는 친구지거나 교수지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므로 가족지지는 시험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시험불안은 남학생보다 시험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는 간호학생의 시험불안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나[13], 청소년의 시험불안은 남녀차이가 없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31] 시험불안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험불안은 학교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상위권인 학생보다 높았는데, 간호학생의 국가고시 시험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학점이 높은 경우, 모의고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시험불안이 높은 Lee와 Kim[8]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시험불안

에 대한 국내 메타분석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시험불안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계를 맺으므로[29], 성적에 따른 학생의 시험불안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간호학생의 성적에 따른 국가고시 시험불안의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간호대학 4학년생의 국가고시 시험불안을 설명하는 예측요인은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족지지였다. 즉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가족지지가 좋을수록 시험불안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목표 수행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으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집중하게 한다[10]. 자기효능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생기는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10], 이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Lax(1982)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낮은 학생보다 시험불안이 낮으며([12]에서 인용함),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과 음의 상관관계였다[13]. 간호대학생의 국가고시 시험불안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논의에 제한이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취업스트레스가 적고[27],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이 부적 상관성을 가지며[13], 메타분석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에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지는 것인[29],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선행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간호대학생의 국가고시 시험불안을 설명하는 두 번째 예측요인이었다. 사회적지지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는 시험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지만 시험불안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은 가족지지였다. 가족지지의 주체인 부모는 개인의 발달 전 과정을 통해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지지 체계로 알려져 왔으며, 가족의 중요 구성원인 부모의 태도나 양육 방법 등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어 왔던 변수이

대[25]. 부모의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자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발달하여 시험에서 오는 불안이 낮아질 수 있다 [18].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가족의 핵심으로 부모가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높은 독립성 인정과 자녀에 대한 낙관적인 접근 및 가족 간의 갈등이 없는 응집력 있는 태도는 자녀의 시험불안을 줄이고 학업적응과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시험불안 해결로 부모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30]. 사회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중요한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지지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부모지지가 시험불안에 효과크기를 가져[29], 본 연구의 시험불안에 대한 가족지지 영향력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한 취업난을 겪는 요즘 대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에서의 시험불안을 낮추는데 가족 특히 부모의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험불안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함께 부모를 포함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4], 부모를 포함한 가족지지는 안전한 외적 환경으로서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긍정적인 자원이자 심리적 안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들은 부모와의 다양한 감정적 교류방법을 모색하여 충분한 가족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는 시험불안과 부적 상관성을 가지지만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메타분석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시험불안에 매우 높은 효과크기를 가지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상관 효과크기가 있고[29], 고등학생의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시험불안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5]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고생의 부모지지와 교사지지가 시험불안과 상관성이 없는 것은[14]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와 시험불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가족지지가 국가고시 시험불안에 미치는 설명력이 13% 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시험불안에 영향력을 가진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및 우울[20], 자신감과 완벽주의 성향[31], 귀인성향[32],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신감[33], 교사지지와 친구지지[25], 정서, 동기와 신념, 사회성, 학업성취[29], 학점과 모의고사 성적[8]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국가고시 시험불안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외적 환경으로서의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제나 목표를 잘 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내적 특성이며 가족지지는 사회적지지의 한 요소로서 개인에게 긍정적인 인정과 지지를 주는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시험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는 시험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이 시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시험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의 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외적 환경인 사회적지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경남지역 몇 개의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고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적 특성과 외적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시험불안에 대한 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외적 환경으로서의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한 것에 있다. 지금까지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시험불안 및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시험 준비를 돕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험불안 감소를 위하여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가족지지를 적극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긴 시간 동안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내적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외적 환경인 사회적지지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가족지지는 시험불안에 영향을 주어 자기효능감이 높고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을 낮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대한 가족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셋째,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 감소를 위한 다른 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넷째, 국가고시를 앞둔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 감소를 위한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이인숙, “라벤더 향이 국가시험을 앞둔 간호과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pp.87-94, 2006.

[2] 이미현, 박미숙,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학업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863-872, 2014.

[3] 최승혜, 이해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08-816, 2013.

[4] 조수철, “시험불안의 개념과 이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2권, 제1호, pp.3-10, 1991.

[5] 이종화, 김희영, “자아존중감, 가족의 지지 및 각각된 건강상태가 성인수험생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74-180, 2007.

[6] 조수철, 정 영, 홍강의, 신민섭, 성영훈, “시험불안과 우울,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2권, pp.225-236, 2001.

[7] KEDI, “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2015.12.16. Retrieved February 5, 2016, from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eb site :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selectTp=0&article_sq_no=30069&board_sq_no=3¤tPage=0&doc_use_yn=N

[8] 이선훈, 김진경, “간호대학생의 국가고시 관련 시험불안,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77-185, 2010.

[9]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10] A. Bandur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4, No.3, pp.359-373, 1986.

[11] R. D. Caplan, A. D. Vinokur, R. H. Price & Ryn, and M. Van, “Job seeking, re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in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4, No.5, pp.759-769, 1989.

[12] 박혜랑, 상태-특성불안, 자기효능감, 행동억제체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3] 송영숙, 강희영, 최은영.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 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간호과학회 창립 40주년 나이팅게일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p.222, 2010.

[14] 전화선, 여고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5] 한미현, 유안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17권, 제1호,

- pp.173-188, 1996.
- [16] 양윤경, 한금선, 배문혜, 양승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학업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제22권, 제1호, pp.23-33, 2014.
- [17] 박정희, 박정미, “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제31권, 제6호, pp.125-134, 2010.
- [18] 정중희, 정현희, 이귀숙,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6권, 제3호, pp.377-393, 2009.
- [19] T. Brewer, “Test-taking anxiety among nursing &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Vol.40, No.11, pp.22-29, 2002.
- [20] 김영희, “간호대학생들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료분석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003-2014, 2011.
-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2007.
- [22] 김선희, *쪽방거주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3] Y. M. Lee, R. Schwarzer, and M. Jerusale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1994. Retrieved October 2, 2015. from http://web.fu-berlin.de/gesund/publicat/ehps_cd/health/korean.htm
- [24] C. D. Spielberger, H. P. Gonzalez, and C. J. Taylor, *Tes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1980.
- [25] 김이레,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 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6] 김영선, 김영희, “뇌 호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pp.251-261, 2009.
- [27]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621-631, 2002.
- [28] 황성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29] 박병기, 임신일, “시험불안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4호, pp.875-894, 2010.
- [30] 이영식, 성종호, 손인기, “청소년의 시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적 요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1권, 제1호, pp.16-26, 2000.
- [31] 조영미,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2] 임순연, 조영식, 배현숙,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제11권, 제3호, pp.313-323, 2011.
- [33] 염시창, 박현주,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2권, 제1호, pp.19-35, 2005.

저 자 소 개

노 윤 구(Yoon Goo Noh)

정희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14년 8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 간호윤리, 간호교육

이 영 숙(Young Sook Lee)

정회원



- 1900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00년 8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0년 9월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조직성과, 리더십과 팔로워십, 간호윤리, 간호교육